| 불자 세상보기 |

본질 망각한 인문학 진흥은 '毒'



성태용 교수
건국대 철학과

인문학은 운동장, 여러 학문은 선수
운동장 망가지면 선수는 뛸 수 없다
선수처럼 운동장에게 뛰라해도 안돼

인문학 필요성 · 활성화 요구하면서도
정작 대학 정책은 인문학 축소 일로

'인문진흥법' 따른 교육부 계획 발표
법률 기반한 정책에 기대 · 우려 半半
"제 값해라"식 진흥책은 이제 사양

"수원지가 고갈되거나 오염되면 아무리 수도꼭지가 많아도 맑은 물을 먹을 수 없다." 인문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입장에 선 사람들이 즐겨 하는 말이다. 바로 실용적인 편의를 주는 학문이 수도꼭지에 해당한다면 인문학은 수원지에 해당한다. 중간에 배관 시설에 해당하는 학문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실용적인 편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바로 인문학이요, 그렇기에 자칫하면 소홀히 하기 쉬운 것이 인문학이다.

다른 시각에서 말한다면 여러 학문들이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라면, 인문학은 운동장에 해당한다. 얼핏 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그 운동장이 없거나 망가지면 아무리 선수가 많아도 뛸 수가 없다. 그런데 운동장에게 선수처럼 나와 뛰라고 요구하거나, 그렇게 못한다고 천시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수원지가 수도꼭지와 가까워서 좋은 것은 없다. 운동장이 선수처럼 뛰려고 한다는 것은 애초에 안될 말이다. 그렇게 실제적인 편의와 거리가 멀고 눈에 띄는 활동을 보기 힘들기에 우리 사회가 인문학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올바르게 육성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요즘 세태의 흐름을 보면서 인문학도로서 인문학의 위상에 대해 좀 상반된 느낌을 갖게 된다. 한편으로는 여기저기서 인문학의 필요성을 외치고, 인문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지만, 정작 대학 정책 등을 보면 갈수록 인문학의 입지를 축소시키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그런 와중에 지난해 8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이제는 법률적인 바탕 위에서 인문학이 꽃피는 날이 오는구나"하는 생각하면서 큰 기대를 갖게 되었다. 그러던 것이 이번에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나왔다. 기초 인문학 활성계획과 생활 속에 인문정신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기본 방침이 나왔다는 점에서, 법률을 바탕으로 한 걸음 크게 내딛었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보면 여전히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강화한다", "추진한다", "계획이다"와 같은 표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 계획 또한 구체화를 거쳐야 하는 사전 단계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결국 이 발표에서 말한대로 이번 3월까지 수립하겠다는 2017년 시행계획이 나와 봐야 그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발표의 전체적인 내용은 2006년 경에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인문학 부흥 운동과, 그 뒤 교육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을 통해 시행된 '인문한국(HK)' 사업의 맥을 그대로 잇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또 앞에서 이룬 바탕이 있기에 이 계획이 제대로 시행되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기대도 갖게 된다.

그런 기대 속에 한편으로 경계를 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인문학의 본질을 망각하고, 인문학이 우리 대중의 구미에 딱 맞는 쓸모를 가지고 나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계획이라면 사절하고 싶다. 말없이 기본을 놓는 진득함을 가지고 시행되어야 한다. 마치 "망할 것을 살려 주는 것이니, 얼른 제 값을 해 봐라"하면서 인문학을 몰아간다면 이는 오히려 인문학을 정말 망하게 하는 짓이다.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문화가 당연히 사회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믿음, 인문학적 소양이 개인의 삶에 풍요로운 근원이 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 삶의 바탕에 깔아가는 그러한 사업이 되었으면 한다. 그러하기에 모든 교육과정에 인문학의 비율을 늘린다는 것은 가장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다. 그것이 억지춘향식의 늘림이 되지 않고, 인문학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는 바탕 위에 자연스럽게 시행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잘 살아보세"를 넘어 '인문 문화의 시대'로 나가는 역사의 흐름을 지금 여기서 일구어야 한다.

社說

조계종의 전법 강화 계획에 부쳐

조계종 교육원과 포교원의 올해 목표의 공통점은 '전법 강화'이다. 교육원은 전법 역량 있는 출가자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포교원은 전방위 신행혁신운동을 펼친다.

2015 인구센서스 조사에서 불교 인구가 300만 명이 줄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 더욱 피부로 와닿는 목표들이다.

교육원의 경우 학인 스님들의 대중설법에 필요한 자질을 배양하기 위해 7월경 '제1회 조계종 학인 설법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 〈설법과 토론〉, 〈종무행정〉 등의 교과목을 신설하기도 했다. 2급에 이어 3급 승가고시에서도 '설법' 능력 평가를 도입하며, 모든 승가고시 논술에 '전법 · 포교'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포교원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준비하고 있는 신행혁신운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신행혁신을 위한 사부대중 대중공사부터 거점사찰 확대 등이 추진된다. 신도 수행학교 시범 운영과 선원수좌회와의 수행프로그램 개발 등도 눈길을 끈다.

교육원과 포교원이 추진하는 사업은 모두 불교계 전법 능력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학인 스님들의 설법 능력을 배가를 위한 설법대회도, '붓다로 살자' 등 신행혁신운동 역시 모두 종단 차원의 전법 · 포교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분명 제대로 시행만 된다면 포교 환경 개선과 인프라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첨언하고 싶은 것은 무종교인과 타종교인에 대한 포교와 전법방안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불교는 사찰과 사찰을 '수평 이동'하는 포교만 있어 왔다. 내부 역량 강화와 함께 불교계가 추진해야 할 부분은 무종교 · 타종교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어떻게 포교할지에 대한 고민이다.

10.27기념재단, 종교 특혜 아니다

제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서도 10.27기념재단 설립에 대한 내용을 담은 10.27법난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2015년 국회 심의과정서 기획재정부 반대로 한 차례 제외된 사례가 있어 이번만큼은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되길 불교계는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9대 국회서 "타종교 기념관의 경우 공공기관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논리로 10.27법난법 기념재단 설립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법안 논의기간이 짧았다는 의견도 있지만 10.27기념재단을 일종의 '종교 특혜'로 바라보는 정부부처의 편향된 시각에 불교계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0.27법난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승려 및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 · 수사하고, 포고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 아래 군 · 경 합동으로 전국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국가공권력 남용이자 한국불교 치욕의 사건이다. 이때 5700여 개의 사찰과 암자가 수색당하고 1900여 명이 연행되거나 고문을 당했다. 그럼에도 제주4.3사건이나 동학농민혁명 등 여타 과거사법률과는 달리 기념재단과 추모사업에 대한 항목이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불교계는 지속적인 추모 · 기념사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따라서 10.27법난 기념사업을 담당할 기념재단을 종교 특혜로 봐선 안 된다. 이는 그릇된 과거사를 바로잡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의 치유를 돕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이제라도 10.27법난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과거사 치유의 당위성을 기획재정부가 적극 받아들여 올바른 역사 알리기에 나서길 바란다.



사유의 숲을 거닐며

새벽을 깨우는 닭 울음처럼

송마나 작가

정유년(丁酉年), 붉은 닭의 해도 벌써 보름이 흘렀다. 닭은 12지신 가운데서 유일하게 날개가 있지만 날지 못한다. 작은 땅벌도 날개를 윙윙거리며 공중을 날아다니고, 사람들이 혐오하는 박쥐도 날개를 활짝 펼쳐 하늘을 나는데 멋진 날개를 지닌 닭은 날지 못한다. 생물은 물에서 뭍으로 그리고 날개를 얻어 하늘로 비상(飛翔)하는 것이 순리이다. 그러나 닭은 날개가 퇴화하여 날지 못하고 다리만 튼튼해져서 땅을 종종거리며 머리를 숙여 먹이를 찾는다.

온갖 동물들이 등장하는 〈산해경(山海經)〉을 살펴봐도 봉황이 닭의 화려한 꼬리를 닮았을 뿐 닭은 언급되지 않는다. 백악기 후기에 몽골에서 살았던 길리미무스라는 공룡이 깃털은 없으나 닭을 닮았다고 한다. 아마도 닭이 공룡에게 제 목의 신축성을 자랑한 탓에 공룡이 그 장점을 취했나 보다. 이처럼 다른 동물들은 닭의 우수한 면을 제 몸에 접목시켜 더 멋진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닭은 오히려 퇴화하다니 딱하지 않을 수 없다.

하기야 닭은 일 년에 100개에서 200개의 달걀을 낳고 고기는 다양한 요리로 만들어져서 인간에게는 유익한 가축이다. 근래에는 그 인기가 얼마나 좋았으면 '치맥(치킨+맥주)'이란 신조어가 중국까지 전해졌을까.

닭은 설화에 등장한다. 신라의 탈해왕이 어느 날 밤에 금성의 시림(始林) 숲속에서 닭 울음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나뭇가지에 걸린 금빛 궤 안의 아이를 거두어 키웠다. 그 이름을 김알지(金閼智), 숲을 계림(鷄林)이라 하고, 그가 왕이 되어서는 국호를 계림(鷄林)이라 하였다.

이뿐 아니라 고대의 영웅이나 나라의 시조는 아예 알 속에서 태어났다는 난생설이 활개를 친다. 우리나라에서도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朴赫居世)와 석탈해(昔脫解), 수로왕(首露王), 고구려의 동명왕(東明王) 등을 꼽을 수 있으니, 알을 낳는 닭이 으스댈 만하다.

닭 머리 형상의 계룡산(鷄龍山)은 또 어떠한가. 계룡산에 정도령(鄭道令)이 나타나면 새 세상이 열린다는 예언에 내가 정도령이라고 떠들어 대는 이들이 한둘이던가.

아하, 내가 아니면 누가 새벽을 알리느냐고 발끈하는구나. 그래, 네가 울어야 어둠이 걷히고 새날이 밝아온다.

석가는 새벽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고, 예수는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했다. 샛별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계명성(啓明星)'이다. 갈 길을 잃고 헤매는 심령에게 환하게 길을 밝혀주는 진리의 빛이다. 베드로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자 그를 세 번이나 부인하다가 여명의 닭소리를 듣고서 통곡했다. 그는 '계명성(鷄鳴聲)'을 들은 것이다. '계명성(啓明星)'은 '계명성(鷄鳴聲)'과 다르지 않다. 닭소리는 어둠 속에 잠들어 있던 무명(無明)을 깨우는 '도계(道鷄)'의 소리이다. 닭소리는 자아(自我)라고 여겼던 마음이 빚은 환상의 껍질을 벗기고 내 안에 깃든 진여(眞如)를 깨우는 '불계(佛鷄)'의 설법이다.

정유년의 닭이 힘차게 홰쳐 운다. 우리 모두 이 닭소리에 잠든 본성을 깨워 새로운 불국토를 이루어 나가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태양의 꽃 우담발화가 핀 부평 용천사. 부처님 탄생이래 삼천년에 한번 피는 불사조 불사신 불광도량 달마조계종 부평 용천사 도량에 태양의 꽃 우담발화가 되어 성스러운 조화를 이루어 지구촌 이그러진 법도와 꺼져가는 민족의 얼과 혼이 일체 종교가 하나로 되어 만년만법을 다스릴 능력자 성인 도인 진인 선녀 신선들에게 태양의 무량자로 온 생명을 구하는 도량으로 하강하신 우담발화 병겁이 시작되는 2014년 가보세 가보세 사부작 사부작 병신 정유년에는 병든 닭 병든닭 무술년에 무수한 생명이 죽어가는 시대를 다스릴 초능력 도통군자 일류스승되는 대용맹정진 대법회

부처님께서도 루안통을 하지 않은 제자들은 내 제자가 아니라 하셨으며, 오통은 누구나 하지만 육통자재인 천안통으로 비구 비구니 보살 대중들도 성불도통 하는 것이고 진광 빛을 보지 못하기에 업에 쌓여 선교, 불교, 유교, 도교에서도 찾는 천궁통 철야기도 대용맹정진 양력 2017년 2월 1일 ~ 2일 무박 2일 전국경향각지 종교를 초월 도통군자 저변확대는 물론 꺼져가는 이그러진 법도를 바로세울 인제 도인 선녀 지망생들에게 이소식을 전하며 그 누구도 주문이 없으므로 말법 병겁에는 도를 통한자만이 일체조상 빙의 잡신 귀신 천신 만신등을 천도 해원 시킬수 있으므로 천하대세를 아는 자는 단한번의 수행으로도 각종질병과 초상상문 이사주당 혼인주당 각종 귀신 잡신에 빙의된자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 의통능력을 얻어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구하는 대 용맹 정진으로 진광 진법 빛의 신통조화능력을 얻어 신인도통, 해원상생, 수명연장, 부귀장수, 신선문화, 복지창달로 인류를 구할수 있는 강력한 초능력 얻는 무박 2일 천하대법에 입문하시어 그간 방황하던 종교수행에 신선도인, 성현, 선녀, 지상신선으로 해원신, 조화신, 보응신을 부리고, 단번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진광 진법으로 일류스승의 도를 통하여 볍겁에 전인류를 살리고, 만인을 제도하는 만사형통 모든 귀신 잡신 천신 만신을 부리는 천하제일의 도통군자 되는 법이고 현재 부리고 있는 각종 신들은 자기대에서만 부리고 자손으로 가지않는 해원 상생법으로 계론, 시론, 생천론으로 해원상생하는 법이니라.



거부장자로 사는 달마구입처 : 태일
02)821-6622
010-3239-3110





환성 무상사 태일대종사

■ 입 제 일 : 2017년 2월 1일(음력 1월 5일) 수요일 오후 9시
■ 해 제 일 : 2017년 2월 2일(음력 1월 6일) 목요일 오후 9시 무박 2일 해시
■ 동 참 비 : 기도 및 교재비 10만원(계좌번호 : 농협 029-01-1678866 곽한영)
■ 준 비 물 : 필기도구, 세면도구 무박 2일
■ 상담전화 : 032)502-6625, 6629 / 010-9292-3110
■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204-4번지 부평시장입구 천지공사 용천사

정유년 입춘 불공을 왜 하여야 하는가?

사람에 병은 어디서 오는가를 알아야 장수하고 방편도 하는 것이 입춘기도보다 중요한 기도가 없으며 입춘일부터 사람을 괴롭히는 삼시구충과 각종 빙의신, 모태유산으로 탄생못한 혼들이 입춘일전부터 입춘날에 오장육부와 머리골, 뼈골까지 파고 들어가 각종질병을 발생 죽고사는 병을 만들어 괴롭히는 것이고, 특히 삼재나 삼충이들면 상시구충들이 잡신들을 총 동원하여 수마, 병마, 빙의신, 허주책쥐귀신들이 정신속에 숨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만들어 보증 싸움 이혼 투기 삼재 관재 사고로 인하여 고통받는 것을 **용천사 태일대사**만이 과학이나 의학이나 한방 양방에서도 모르는 귀신병을 입춘날 본인의 양말에다 방편하여 악운의 삼재와 질병및 흉살 고통을 빛으로 제도하며 재수대통으로 수화 병마 인마까지도 해탈되어 건강 사업 진급 학업 취직 결혼 장수 성취한다.

● 입춘불공기도 : **2017년 2월 1일 ~ 2017년 2월 5일까지**
● 기 도 비 : 10만원〈삼재든 분은 1인당 33만원 양말과 함께 십원짜리동전 12개 꼭 준비함〉

현대의술도 잡지 못하는 삼시구충은 루진통만이 삼시구충을 제도한다.
삼시구충들은 동지부터 입춘까지 인간들의 오장과 육부와 육신에
파고 들어가 아프게 하며 각종 빙의신 허주신 등을 번식시킨다.

사람의 육신속에 각종병을 일으키는 삼시구충 병마귀신





일체종교가 하나로 되는 금강진법수육보영 | 천지공사 진광미륵달마 불선도 총본산 | 사)대한불교 달마조계종 용천사 환성태일대사